

#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 『홍씨독서록』 「史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tegories for Bibliographic Analysis Used in  
*Hong's Dokseorok* Based on the "Notes on the Use of the Book"  
of the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 Centering on the "History Section" of *Hong's Dokseorok* -

趙永來 (Cho, Young-lae)\*\*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홍씨독서록』과 한중 '서지통정' |
| 2. 『독서록』의 서지분류와 체례 구성                 | 6. 소 결                |
| 3. 『독서록』의 도서 선정기준과<br>『총목제요』의 「凡例二十則」 | <참고문헌>                |
| 4. "凡例二十則"과 『독서록』 선별<br>기준의 항목별 비교    |                       |

## < 초 록 >

『홍씨독서록』은 洪奭周의 저술로 그가 친히 접했던 472종 16,000여 권에 달하는 도서를 經·史·子·集으로 분류해 설명한 해제목록서이다. 본서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과 청과의 빈번한 문화교류라는 시대배경과 무관하지 않고, 특히 중국의 『사고전서』와 『사고전서총목제요』의 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점에 주목하고자 『홍씨독서록』을 저술한 당시 본서에 수록한 도서의 선별기준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한중 문화교류의 시간적인 전후 관계의 맥락을 근간으로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해 『홍씨독서록』의 수록 도서선별과 서지분석의 기준과 범주를 고찰했다. 이런 고찰을 통해 홍씨의 도서 분류 체계가 중국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홍씨독서록』의 독창성을 밝혔다. 아울러 홍씨의 두 차례 연행과 한중간의 대규모 편찬사업의 시간적인 전후 관계의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양국 간에 내재했던 지식체계의 공유라는 가능성을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의 개념으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고찰했다.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한중간의 도서 분류와 지식체계의 분석은 『홍씨독서록』의 가치를 국제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5670).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is815@hanmail.net)

접수일: 2015년 2월 27일 최초심사일: 2015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24일

화하는 동시에 후학으로 하여금 연구 관점과 분석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 남겨주었다.

要語: 『홍씨독서록』, 『사고전서』, 『사고전서총목제요』, 『법례』, 서지통정, 한중 문화교류

<ABSTRACT>

*Hong's Dokseorok* is Hong Seokju's annotated catalog in which Hong classified 16,000 books of 472 categories he himself had read into classics, history, philosophy and literature.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frequent cultur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Ching. In particular,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ublication of the *Sago Collections* and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in Ching.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is fact in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books listed in *Hong's Dokseorok*. In this context, this paper studie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listed in *Hong's Dokseorok* and the standards and categories for bibliographic analysis used in *Hong's Dokseorok* based on the "Notes on the Use of the Book" of the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considering the temporal relationship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Ching.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illuminated the uniqueness of *Hong's Dokseorok* by comparing Hong's classification system with that of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and determining what the differences are.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Hong's two visits to Beijing and the comprehensive compilation projects carried out in Joseon and Ching. This paper also studied the historical possibility of knowledge sharing in terms of bibliographic control that may have been present between Joseon and Ching. The importance of the analysis of book classification and knowledge system of Joseon and Ching based on the "Notes on the Use of the Book" of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should be publicized to the global community through the study of *Hong's Dokseorok*. At the same time, this paper leaves a challenge for future studies that they should focus on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perspectives and analyses for this subject.

Key words: *Hong's Dokseorok*, *Sago Collections*,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bibliographic control, relationship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Ching

## 1. 머리말

조선시기 중국은 외래 문물을 수용하고 흡수하는 중요한 교류 창구 중에 하나였다. 명말청초의 격변기를 겪은 조선은 淸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의 안전화를 축으로 지속적으로 청의 문화와 문물을 흡수하며 동아시아 정세변화 파악에 주력했다. 조선과 청과의 빈번한 문화교류라는 시대배경을 두고 등장한 것이 바로 『홍씨독서록』(이하 『독서록』으로 약칭)이다. 본서를 저술한 홍석주(1774-1842년)는 조선후기 문신으로 22세(1795년)에 과거에 급제했고, 초기 그의 행보는 정치보다는 도서를 관장하는 직사관에 종사하며 예문관 검열·사간원 정언·교리 등을 거치면서 왕실서적을 섭렵했다. 그러다가 37세에 이르러서는 규장각의 직제학이란 직위까지 이르렀다. 홍석주는 과거 급제 후에 직제학이 되기까지 그는 주로 왕실의 도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당시 조선의 독서인과 지식인을 대표하는 폭넓고 광범위한 지식체계를 구비했다.

『독서록』의 저술 배경과 관련해 특별히 주목한 점은 홍씨 나이 30세와 58세가 되던 시기 두 차례에 걸쳐 연행사의 자격으로 淸나라를 방문했다는 것이다.<sup>1)</sup> 그는 왕실도서를 관장하는 관료로 그의 지식의 지평은 당시 조선의 왕실도서관인 규장각의 서적의 범주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러한 연행의 경험과 그가 직접 접했던 청나라의 문화적 접촉 필경 『독서록』 저술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독서록』은 시기적으로 홍석주가 그의 나이 37세가 되던 해 친히 섭렵한 472종 16,000여 권에 달하는 도서를 經·史·子·集으로 분류해 설명한 해제목록서이다.<sup>2)</sup> 원래 “四部”란 중국 서지학의 전통적 도서분류법으로 그 대표적인 저술이 바로 『四庫全書』이다. 『사고전서』는 홍석주가 활약했던 시기와 근접한 청나라 건륭연간의

1) 홍석주는 조선의 謝恩使의 書狀官의 자격으로 청나라를 방문했고, 또한 그곳에서 만난 청나라 학자들과 서신을 왕래하며 학문적인 교류를 지속했다.

2) “해제목록서”라는 서명의 기원은 송나라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지만, 내용과 체계를 근거하면 시기적으로 약간 더 앞선 晁公武의 『群齋讀書志』와 『崇文總目』 등에서 모색할 수 있다. 이후 해제목록서는 『百川書志』와 『讀書敏求記』, 『四庫全書總目提要』 및 『四庫全書簡明目錄』 등으로 발전을 했다.

목록서인데, 이곳에 수록된 도서를 해제한 『四庫全書總目提要』(이하 『총목제요』로 약칭)라는 목록서가 동시에 편찬되기도 했다.

『사고전서』의 첫 번째 판본이 1781년에 완성되었고, 『총목제요』는 이듬해인 1782년에 편찬되었다. 1810년에 저술된 『독서록』과 『총목제요』의 저술 시기는 대략 30년간의 간극이 있다. 때문에 홍석주는 충분히 서지분류와 도서의 선별 기준 등의 방면에서 『총목제요』에서 직접적인 영향 하에 『독서록』을 저술했을 것이라 가정을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1803년 제1차 연경 방문은 그에게 당시 도서와 지식분류 체계의 집대성인 『총목제요』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목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독서록』의 저술은 『총목제요』와 인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상의 사실과 가정을 근거로 『총목제요』의 저술이 『독서록』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주로 도서 분류와 수록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목제요』의 서적수록의 근거를 밝힌 『법례』를 귀납해 그 내용을 『독서록』에 적용하고자 한다.<sup>3)</sup> 다시 말해 『총목제요』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凡例二十則」의 원칙들을 항목별로 분류·귀납해 이를 『독서록』의 서지해제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다.<sup>4)</sup> 그리고 『독서록』의 분석 대상은 주로 「史部」로 한정하려고 한다. 이는 「史部」의 해제가 비교적 사상적인 편향성이 적을 뿐더러 그 분류 체계 역시 많은 독창성을 내재하고 있고, 『독서록』의 「사부」는 나머지 「경부」, 「자부」, 「집부」와 비교해서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독서록』과 관련한 전체적인 연구 경향은 주로 문장론과 독서론, 문학적 관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5)</sup> 『독서록』의 수록 도서 선별에 관한 연구

3) 필자는 이미 『총목제요』의 「법례」의 완역을 통해서 『총목제요』에 수록한 도서의 선별 기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또한 수록한 도서의 해제과정에서 案語가 차지했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조영래,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凡例와 案語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11-153).

4) 물론 국가적 편찬사업으로 진행된 『사고전서』의 해제목록서인 『총목제요』를 개인이 저술한 『독서록』과 비교한다는 점은 그 도서의 선별규모나 분량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도서 선별의 기준과 서지해제의 내용은 도서의 분량과 무관하게 일정한 원칙과 범주 내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연구에 리상용 교수에 의해 심화되고 체계화 되었다. 그의 연구는 『독서록』이 갖는 도서 분류의 독창성을 『사고전서간명목록』과 비교해 진행했고, 또한 체계적인 도서 분류의 기준을 해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귀납해서 수록도서의 일정한 범주를 제시하기도 했다.<sup>6)</sup> 뿐만 아니라 홍씨 『독서록』을 평생의 연구 과제로 삼아 『역주홍씨독서록』(이하 『역주독서록』으로 약칭)이란 서명으로 완역했고,<sup>7)</sup> 별도의 단행본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기도 했다.<sup>8)</sup>

본 연구는 이러한 전인의 연구를 근거했고, 특히 『역주독서록』의 성과를 근간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필자는 『독서록』의 도서 분류와 수록서적의 선정기준 외에도 한중간 지식교류의 다양성과 함께 특별히 해제 내용의 고찰을 통해 당시 청나라와 조선의 지식체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총목제요』와 『독서록』의 수록 도서의 해제와 그 범주의 고찰을 통해 한중간의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2. 『독서록』의 서지분류와 체례 구성

홍석주의 『독서록』의 저술 원인은 그의 가학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그가 저술한 『豊山世稿·跋文』에서 그의 가학적 전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 집안의 저술과 전적은 후대로 전하여 계승됨이 현재에 이르러 16세대에 이르렀다. (중략) 만약 禮儀가 아니면 언급하지 않았고 經과 傳이 아니면 저술

5) 『독서록』과 홍씨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동향과 성과는 리상용의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아세아문화사, 2004)을 참고하기 바란다.

6) 리상용, “洪奭周의 중국서적에 대한 識見,” 『中原人文論叢』 제18집(1998).

리상용,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0집(2005. 5), 247-281.

7) 홍석주 원저, 리상용 역주, 『譯註洪氏讀書錄』(아세아문화사, 2012).

8) 리상용, 『연천홍석주의 서지학』(아세아문화사, 2004).

하지 않았다. 오로지 은화하며 문장에 충실한 것은 중심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전승되는 家法이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감히 이를 바꿀 자는 없다. (중략) 무릇 이후 나의 자손들은 (중략) 저술은 비록 예의와 경전에 근본을 두지 않을지라도, 편벽되어 유치하거나 기이한 것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함을 반복하지 않고서 자신을 굽히어 그 몸을 온전히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sup>9)</sup>

홍씨 집안의 문장과 학문은 예의와 경전에 근거한 정통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특이하거나 편벽되거나 음란하고 교만한 저술 행위를 경계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홍씨는 이러한 엄격한 가학과 충실한 독서생활을 통해서 서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습득했다. 이에 대해 “經과 禮를 근본으로 삼고, 子와 史를 참고하여 六藝의 文林을 총괄하고 百家의 총서를 넘치도록 많이 탐독하여 弱冠에도 이르지 않아 학문을 이미 집대성했다”<sup>10)</sup>고 했다. 홍씨의 독서는 과거시험을 위한 편협한 경전 탐독에 머물지 않고서 經·사·자·집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지식체계의 근간은 이미 어릴 적 가학에서부터 그 기초를 마련했다.

홍씨는 『독서록』을 저술할 당시에 가학적 전통과 함께 풍부하게 소장했던 家藏의 서적을 바탕으로 어릴 적부터 전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고, 특히 그의 관직 역시 홍문관과 규장각 등 왕실도서관을 관장하면서 그의 해박한 지식은 더욱 완숙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었다. 그는 『독서록』을 저술하면서 『사고전서 총목제요』에 버금가는 목록을 편찬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목록작업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기도 했다.

“오호라! 상하 수천 년의 서적으로 한 시대의 큰 전적을 만드는데 한 시대의 꺼리거나 피하는 일과 한 사람의 애증이 그 사이에 끼어드니 그 일이 정말로 어렵도다. 총목은 전체 200권인데 『四庫全書』에서 수록되지 않고서 總目에 著錄만을 남긴 것이 절반을 차지한다. 잘못되고 누락된 것을 다 헤아려 지적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sup>11)</sup>

9) “吾家以文學相傳紹，迨今十八世矣。(중략) 若其非禮儀不稱，非經傳不述，唯一是和平典寔以爲主者。是維吾世世家法。至於今，未有可易者。(중략) 凡我後子孫(중략) 文而不本於禮儀經傳，且無爲僻澁尖新淫巧之習，以徇時好者哉。”

10) 洪奭周, 『淵泉先生家狀』(淵泉全書, 影印本 卷5).

11) 『역주독서록』: “嗚呼，上下數千年之載籍，以敦一代之鉅典，而乃欲以一時之忌諱，一人之

이처럼 그는 『독서록』을 저술할 당시 수록 저술의 도서 해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충분히 알게 한다. 『독서록』은 비록 『총목제요』처럼 서두에 범례 등과 같은 도서선정의 원칙은 남기지 않았지만 각 해제에서 수록한 도서를 설명 하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서 수록의 이유를 밝혔다.<sup>12)</sup> 이점은 조선시대 해제 목록서인 『해동문헌총록』, 『누관고』, 『규장총목』에서도 특별히 수록한 서적 선정의 근거와 사유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만 『독서록』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다.<sup>13)</sup> 이러한 원인은 조선시기 목록서 서두에 「범례」를 명기하지 않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독서록』의 도서 분류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목록서인 『簡明目錄』을 근거했음을 홍씨의 외손 韓章錫이 언급했다.<sup>14)</sup> 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중국의 것을 모두 모방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독서록』은 중국의 『四庫全書』와 『총목제요』, 그리고 『簡明目錄』 등과 는 도서의 분류 체계가 비록 서로 유사하나, 四部의 분류는 다른 두 개의 분류 체계인 “部—門—目”과 “部—類—屬” 등이 혼재한다.<sup>15)</sup> 이점과 관련해 『독서록』을 검토하면 “部—類”의 분류는 분명하게 類序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類—屬”의 관계에서 “屬”의 분류는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sup>16)</sup>

중국 분류체계와의 공통점을 보면 『독서록』은 『총목제요』의 “部—類—子”의 기본적인 분류 체계의 핵심인 “部—類”와 “類序”의 방식을 견지했다. 즉 類目的

---

好惡，參於其間，其亦難矣。總目凡二百卷，刪其書而存其目者，又居其半，舛繆闕漏，殆不可勝掇也。”

12) 이런 점에서 『독서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장·열독·참고했던 도서를 망라한 私藏圖書目錄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한울, 2011), 211).

13) 리상용(2005), 249.

14) 韓章錫, 『淵泉先生年譜』(淵泉集 附錄, 1911): “『讀書錄』(중략) 蓋倣於簡明目錄.” 여기서 말하는 『簡明目錄』이 『四庫全書總目提要』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四庫全書簡明目錄』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두 저술은 모두 『四庫全書』에 수록한 도서에 대한 간명목록이기 때문이다.

15) 『역주독서록』, 13.

16) 예를 들면 『독서록·史部』 正史의 類序에서는 “史之屬有三”이라고 “屬目”을 언급하나, 『독서록·史部』 志의 類序에서는 “志其大者有五”로 표기했다. 즉 『독서록』은 “類—屬”의 관계를 통일적인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지 않고 있다.

기능과 관련해 서두에 “類序”라고 배치하여 해당 도서의 분류 체계의 서지학적인 기원과 특징,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屬目 등을 소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특히 “類序”라는 체례는 조선 서지학에서 유래가 없는 것으로 『독서록』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 “類序”의 사용을 『총목제요』의 영향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sup>17)</sup> 이점을 고려하면 『독서록』의 체례는 최소한 『四庫全書簡明目錄』(이하 『간명 목록』으로 약칭)보다는 『총목제요』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類序”라는 체례에 중점을 두고서 “部 - 類 - 屬”을 근거로 『독서록』의 분류체계는 <도표 1>과 같다.<sup>18)</sup>

<도표 1> 『독서록』의 四부와 서지분류 체계

部	類目	屬目	部	類目	屬目	部	類目	屬目	部	類目	
經部	易經		史部	正史	編年	子部	儒家		集部	總集	
	書經				紀傳		農家			別集	
	詩經				別史				醫家		
	禮經				儀禮		兵家				
		周禮		野史	老家						
		三禮總意		禪史	紀言		法家				
		通例			紀人		雜家				
		雜禮			紀事		數家				
	春秋			志	總志		天文家				
	四書			論語	禮儀		數術家				
		大學			典法	藝術家		說家	論說		
		中庸			職方	藝文		記述			
		孟子			四書總義					考證	
		孝經								評藝	
	小學	小學					類書				
		訓詁									雜纂
		字書									
		韻書				小說家					
樂經	總經				總子						

17) 조선시기 편찬된 『海東文獻總錄』(1796년), 『奎章總目』(1781년), 『鏤板考』(1796년), 『群書表記』(1799년) 등의 목록서에는 “類序”라는 체례를 사용하지 않았다(『역주독서록』, 13).

18) 본 도표는 『역주독서록』 12쪽의 내용을 근거로 일부의 내용을 첨삭하였다.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홍씨는 도서 분류와 목록서의 기원이 중국에 있었다는 점을 간파하면서 『독서록』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漢나라가 번성하는 시기에 劉向과 班固가 교감한 책이 대략 13,269권에 달했다.”

劉向의 교감이란 漢나라 成帝시기에 서적을 교감하여 장서를 분류, 정리하여 『別錄』을 저술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아들 劉向이 六分法의 분류체계인 『七略』을 완성할 수 있었다. 여기서 班固를 언급한 것은 『七略』의 분류법을 『漢書·藝文志』가 계승했기 때문이다.

『독서록』에 수록된 도서는 모두 424종이며 그중에 무려 86%에 해당하는 363종이 중국도서이다. 나머지는 조선과 고려 도서로 편찬의 형식과 체례는 대다수 중국의 것을 모방했다.<sup>19)</sup>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도서 분류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로 보인다. 이에 『독서록』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고, 사부분류법은 자연스럽게 도서 선별과 분류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 3. 『독서록』의 도서 선정기준과 『총목제요』의 「凡例二十則」

홍씨는 『독서록』에서 수록된 도서를 각기 도서해제 부분에서 본 서적을 선정한 기준과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본서에 수록된 서적은 한국과 중국본이 차이하고 있는데 한국본이 64권, 중국본은 408권에 달했다. 관련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면 도서해제 과정 중에 선정 근거를 밝힌 것이 260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472종 도서에서 55%를 차지하는 분량이다.<sup>20)</sup> 이처럼 홍씨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서 『독서록』에 관련 도서를 선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홍씨 『독서록』의 서지해제와 도서 선별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다.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인 리상용 교수는 『독서록』을 체계적으로 연구

19) 조선과 고려시기 도서를 필요에 따라서 중국도서와 대비해서 ‘한국도서’로 표현하고자 한다.

20) 리상용, “홍석주의 중국전적에 대한 식견,” 『중원인문논총』 제18집(1988), 126.

분석하면서 그 기준으로 (1) 내재적 가치에 의한 기준, (2) 사상적 가치에 의한 기준, (3) 역사적 가치에 의한 기준, (4) 기타 기준 등 4가지로 구분하기도 했다.<sup>21)</sup>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대표적인 도서를 열거해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리상용 교수의 『독서록』 수록도서의 분류 기준과 대표도서

/	수록 기준	기준의 분류	대표 도서
1	내재적 가치	1. 내용의 우수성	『敦孝錄』, 『東史綱目』, 『東國文獻備考』 등
		2. 저자의 중요성	
		• 2-1. 저자의 지명도	『呂氏家塾讀詩記』, 『龍川略志』, 『益齋集』 등
		• 2-2 고금의 문장가	『戰國策』, 『莊子』 등
		• 2-3. 인용의 가치성	『南史』, 『北史』, 『顏氏家訓』 등
		3. 일독의 가치성	『春秋權衡』, 『韓詩外傳』, 『高麗史』 등
		4. 필수 지침서	『攻史新書』, 『喪禮備要』, 『疑禮問解』 등
2	사상적 가치	1. 성인과 대학자의 추앙서	『鄭氏易傳』, 『書集傳』, 『孔子編年』 등
		2. 夏殷周 시기 풍속·제도, 덕행	『喪禮補編』, 『司馬法』, 『呂氏春秋』 등
		3. 유가의 정치사상	『通典』, 『大學衍義』, 『國朝寶鑑』 등
		4. 의리와 충절	『亂中雜錄』, 『再造藩邦志』, 『莊陵誌』 등
		5. 경계가 필요한 서적	『抱朴子』, 『韓非子』, 『金剛經』, 『華嚴經』 등
3	역사적 가치	1. 유일본, 희귀본, 最古本	『尚書註疏』, 『周易集解』, 『春秋集註』 등
		2. 학과와 학문의 기원 고증	『列女傳』, 『桂苑筆耕』, 『說文解字』 등
		3. 기존 서적의 보충과 대체성	『南唐書』, 『東史會綱』, 『宣和奉使高麗圖經』, 『燃藜室記述』 등
4	기타 가치	명목상의 필요성, 무과시험, 아동을 위한 훈육서	『宋史』, 『元史』, 『通志』, 『同文訓』 등

리상용 교수의 분류기준은 자의적인 요소가 다소 내포된 듯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이러한 분류는 다른 연구자에게 창의적 영감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독서록』의 도서 분류와 관련해 우선 「凡例二十則」의 분류 기준과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서지학의 발전과정에서 「凡例」의 기원은 비교적 오랜 전통을 갖고 독자적으로 발전을 했다. 원래 범례란 단행본의 서두에 배치되어 해당 도서의 요지와 체례, 기술방법 등을 설명한 일종의 ‘일러두기’에

21) 리상용(2005).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해당한다.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類序”, “總序”, “序例” 등으로 출현하다가 『永樂大典』에서 처음으로 凡例라는 명칭으로 등장했다고 한다.<sup>22)</sup>

“凡例”의 전형은 『총목제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본격적인 그 기능을 발휘했다. 『총목제요』의 범례는 모두 20가지가 있는데 이를 일명 「凡例二十則」이라 부른다. 필자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이를 ①저술사상, ②도서변위, ③도서선별, ④도서분류, ⑤유목분류, ⑥유목배열, ⑦자목업선, ⑧저록편제, ⑨저록체계, ⑩저록원칙, ⑪학술유과, ⑫학술경향, ⑬외국 저술 등으로 귀납해 분류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①저술사상, ②도서변위, ③유례논증, ④도서해제, ⑤학술기원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凡例二十則」의 기준과 내용을 대·소분류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총목제요』 「凡例二十則」의 구성과 분류<sup>23)</sup>

/	소분류	‘범례’의 항목 분류의 주요 준거와 핵심 논점	대분류
1	저술원칙	①欽定과 御覽	①저술사상
2	저술사상	⑨⑩勸善懲惡, 彰善癉惡 ⑬敦崇風教 ⑮公道大彰 ⑯表公取義 ⑰闡聖學, 明王道	
3	도서선별	⑦善本과 足本 ③著錄等差	②도서변위
4	도서분류	②經·史·子·集 ⑦③著錄과 存目	
5	유목분류	②部·類·子目	③유례논증
6	유목배열	④嚴選과 隸屬	
7	자목업선	⑤條理秩然 ⑥分析子目, 條理分明	④도서해제
8	저록편제	②帝王著作, 冠各代首 ⑧時代爲次	
9	저록체계	⑨序文과 提要 ⑩總序와 ‘案語’ ⑪爵里的 기술 ⑱舊本과 偽書	
10	저록원칙	⑫⑮考證精核, 論辯明確 ⑳考訂異同, 別白得失	
11	학술유과	⑰兼收並蓄 ⑮봉당과 학과의 배제 ⑲尊經과 雜學	⑤학술기원
12	학술경향	⑫敦茲實學 ⑬釋道外教, 詞曲末技 ⑭實事求是, 務求有用	
13	외국저술	⑦王化外臣, 不分疆界	

22) 조영래,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凡例와 案語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15.

23) 도표 속의 원형 숫자들은 「凡例二十則」의 20가지 범례의 나열순서를 지칭하며, 13가지의 분류 항목은 「凡例二十則」을 번역하면서 그 내용을 귀납해 그 결과를 항목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대분류”란 분류항목을 다시 몇 가지 항목으로 범주를 통합해서 이를 다시 종합한 것으로 서지해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근거로 분류했다(조영래,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凡例와 案語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39).

도표 중의 원형 숫자는 「凡例二十則」을 나열한 순서를 지칭한다. 도표와 같이 핵심 논점과 분류의 준거를 제시한 핵심 단어를 통해서 보면, 「凡例」는 수록한 도서와 서지 분석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은 서로 중복되면서 일정한 범주를 형성했다.

#### 4. “凡例二十則”과 『독서록』 선별 기준의 항목별 비교

『독서록』에 수록된 저술은 대다수가 중국도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역주독서록』을 보면 전체 424종 중 363종이 중국 저술로 전체 86%를 차지했다. 이러한 비중은 조선시대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서지학 방면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한다. 뿐만 아니라 363종의 중국서적은 『周易』, 『史記』, 『孔子家語』, 『楚詞』 등 經·史·子·集의 도서 분류를 통해서 고금을 망라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365종의 중국도서 중 319종의 도서가 이미 『간명목록』에 수록되었다는 점이다.<sup>24)</sup> 다시 말해 『간명목록』의 원형은 『총목제요』를 근거했다는 점이고, 기본 체례를 유지하면서 해제 내용의 축약을 통해서 권질의 분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 바로 『간명목록』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독서록』에 수록된 도서와 도서해제의 서지학적인 범주는 『총목제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독서록』에는 『간명목록』에 대해 이미 언급했고, 연행을 통해 『총목제요』를 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독서록』의 365종의 중국도서 도서해제는 분명히 일정한 『총목제요』와 『간명목록』의 서지학적인 준거를 참고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독서록』의 해제 범위를 <도표 3>의 “범례”

24) 원래 『간명목록』은 1782년 청나라 건륭제 48년에 출간된 해제목록서로 『총목제요』와 쌍벽을 이룬다. 『간명목록』의 편찬은 『총목제요』가 수록한 1,782권이 지나치게 卷帙과 내용이 방대하다는 건륭제의 지적에 근거해 이를 다시 간소하게 축약한 것이다. 『간명목록』의 저술 시기는 조선의 正祖 6년(1782)에 해당한다.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항목을 근거해 양자의 유사성을 열거해서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

#### 4.1 저술사상

『총목제요』는 건륭제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저술이라서 欽定과 御覽의 저술 원칙과 권선징악과 公道大彰의 명분 등이 저술사상의 근거를 이루었다. 반면에 『독서록』은 개인 해제서목이기 때문에 御製 저술은 본문 속에 배열해 별도 독립시키지 않았다.<sup>25)</sup> 다만 도서 해제 중에 종종 저술 사상에 대해서 언급했다.<sup>26)</sup> 예를 들면 홍씨는 『大典通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세종시기에 『경제육전』을 편수하고 세조시기에 『경국대전』을 편수하고, 영조시기에 『속대전』을 편수했다. 『경제육전』이 지금 전하지 않으므로 본서는 대전 양서, 즉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합하고 여기에다 현재의 연혁을 추가했다. 우리 조정이 나라를 세움에 관대함을 근본으로 삼아 비록 한 명령을 내리는데도 한결같이 忠厚, 惻怛, 恤民의 뜻에서 나왔다. 옛 사람이 이른바 사직과 영장이 마침내 반드시 이에 의존한다고 한 것은 이 책을 보면 더욱 믿음이 같다.”

『대전통편』은 정조 9년(1785)에 『경제육전』과 『경국대전』과 『속대전』 등을 종합해 편찬한 법전이다. 홍씨는 법전의 계승성과 정통성을 언급하면서 그 저술 사상을 관대함에 근거한 충후, 측달, 흠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국가와 사직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산해경』에 대해 괴이하고 신령스런 내용이라고 다수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럼에서 이 책을 선별해 수록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문사가 심오하고 우아하며 법도가 있어서 옛일을 해박하게 알고자하는 자가 간혹 취하기도 한다. 내가 이 책을 저술함에 대의에 의거해서 이단을 삭제하고 『수신기』, 『습유기』, 『술이기』, 『유양잡조』, 『이견지』와 같은 책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지만 유독 이 책은 수록했다.”

25) 이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아세아문화사, 2006), 152-154.

26) “저술사상”은 이상용 교수의 수록기준으로 보면 다수가 ‘사상적 가치’의 내용을 포함한다.

『산해경』은 『우공』과 중국 지리서의 비조로 인식되며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했다가, 송대에 이르러 일반 지리서로 객관적인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sup>27)</sup> 『독서록』은 이런 송대의 학술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지만, 홍씨는 『산해경』의 해박함이란 역대이래의 가장 대표적인 “術書”의 가치, 즉 ‘대의’이란 아마도 당시 유효적인 학술적 정통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다.

## 4.2 도서변위

도서선별과 도서의 분류는 도서변위의 주된 내용으로 『법례』에서 이르길 “전대에는 도서를 소장하는데 선별함이 없었고 그래서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뒤섞여 마치 돌과 옥이 함께 하는 듯했다. (중략) 고적을 구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그 장단을 하나하나 분별해 엄격하게 선택했다. (진상된 도서는) 장단을 고려해서 수록된 내용을 간술하고 장점과 단점이 은폐되지 않도록 했다”<sup>28)</sup>라고 했다. 그리고 “도서는 판각과 필사 등 그 판본이 달라 신중하게 善本을 선택해서 목을 작성했다. 같은 도서라도 판본에 따라 내용의 증가와 삭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足本을 구해 서명을 기록했다”라고 했다.

『독서록』 역시 저록 선별에 각별히 판본의 차이점을 중시했고, 동시에 판본에 따른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sup>29)</sup> 『通鑑綱目三編』의 해제에서 “이 책은 두 가지 판본이 있다. 舊本 8권은 張廷玉 등이 편찬한 것이나 너무 간략한 게 한 단점이 있다. 이 책은 新本이다. 『通鑑綱目續編』에 이어서 지어진 까닭으로 『通鑑綱目三篇』이라고 하였다.”<sup>30)</sup>고 했다.

홍씨는 조선 顯宗 8년(1667)에 저술된 『麗史提綱』을 『東國通鑑』과 비교하며 編年과 綱目이라는 체계를 차이와 장점에 비교했다. 즉 “우리나라 편년체 사서로는 오직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가장 저명하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비록

27) 조영래, “중국역사지리 문헌의 목록학적 분류와 그 기원의 연구,” 『서지학연구』 제52집(2012. 9), 181-182.

28) 조영래,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凡例와 案語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19.

29) “도서변위”는 이상용 교수의 수록기준으로 보면 ‘역사적 가치’의 내용을 다수 포함한다.

30) 『역주독서록』, 109.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고려 한 시대에 그쳤으나 강목을 내걸고 요점을 잡아내어 간단하고 쉽게 기록하였으므로 徐居正의 책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이 책이 더 낫다.”<sup>31)</sup>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전장제도 저술인 『通志』를 『通典』과 『文獻通考』 등과 비교하며 그 우열에 대해 “그 정밀함은 杜佑의 『통전』에 미치지 못하고 그 상세함은 馬端臨의 『문헌통고』에 미치지 못한다. 잘난 척하면서 자신이 크다고 하여 가볍게 옛 사람들을 꾸짖으니 더욱 자신을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별히 『三通』이라고 하여 그 유래가 오래된 까닭으로 두우와 마단립 사이에 일단 나열하였다. (이 책은) 굳이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독서록』은 『총목제요』의 『범례』처럼 수록도서에 대한 판본과 체례에 따른 도서의 선별 및 독서의 기준, 그리고 도서의 우열 등의 도서변위에 관한 요소를 다방면에 걸쳐 분석했다.

### 4.3 유례논증

『독서록』은 <도표 1>처럼 四部 분류법을 근거로 도서를 선별해 수록했다. 『범례』는 이런 類例의 분류 원칙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즉 “(『총목제요』에 수록된) 도서는 경사자집을 근간으로 삼아 서명을 배열했다. (중략) 간혹 분류가 번잡하거나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시 子目으로 나누어 條理가 분명하도록 했다. 서명을 수록할 때는 시대순서로 했다”라고 했다.

이런 원칙은 『독서록』에도 관철되고 있었는데, 특히 類目마다 類書를 설치하여 해당 자목을 설치한 이유를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sup>32)</sup> 史類의 類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옛날에 經과 史는 하나였다. 『상서』와 『춘추』가 바로 그 예이다. 성인이 출현하지 않아서 경을 다시 이을 수 없게 되었다고 사실을 기록하는 일이 없어질

31) 『역주독서록』, 111.

32) “유례논증”은 이상용 교수의 “역사적 가치” 중에 학과와 학문기원 및 고증 등의 분류에 해당한다.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경과 사가 분리된 것이다. (중략) 史의 屬目에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編年이요, 하나는 紀傳이요, 하나는 別史이다.”<sup>33)</sup>

그리고 『범례』에는 “四部 서두에 總序를 두어 분류의 원류와 政變의 간술을 강령으로 삼았다. (중략) 類目的 서두마다 小序를 두어 분리와 병합의 연속관계 변화를 상세히 기술하고 條目を 분명히 했다”<sup>34)</sup>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독서록』 역시 史部의 유래가 經部에 기원한 이유와 함께 史部의 자목 구성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했다. 여기서 말한 屬目은 部目 아래에 있는 類目에 속한 子目을 지칭하는 것으로, “部目-類目-屬目”의 분류체계를 밝히고 있다.

『독서록』의 속목분류는 『총목제요』와 비교해 독창성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裨史”를 구성하는 속목을 소개하는 類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裨史란 非史, 즉 역사는 아니지만 역사를 보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구분하면 첫째는 紀言이요, 두 번째는 紀人이요, 세 번째는 紀事이다. 기사란 『춘추』와 같은 것을 말하고, 기인이란 『史記』의 열전과 같은 것을 말하며, 紀言이란 『書經』의 謨, 訓, 誓, 誥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역사인 동시에 역사가 아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역사를 보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사라 한다.”

“裨史”는 중국의 분류법에서도 보기 힘든 유목으로 대략 『隋書·經籍志』와 『舊唐書·藝文志』 등에 보이는 “雜史”, 혹은 “霸史”와 유사해 보이고, 紀言, 紀人, 紀事 등은 “雜傳”, “傳記”, “故事” 등과 같아 보인다.<sup>35)</sup> 하지만 어찌하여 어떤 것은 유목으로, 어떤 것은 속목으로 분류했는지는 類序에 별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독서록』 史部의 분류원칙은 『총목제요』와 비교하면 기본 골격은 유사하나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목제요』의 史部에는 總敍를 가

33) “古者, 經與史爲一, 尙書春秋是也. 聖人不作, 經不能復續, 而記事不可廢. 經與史, 於是分乎.(中略) 猶史之屬有三, 一曰編年, 一曰紀傳, 一曰別史.”

34) 조영래,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凡例와 案語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27.

35) 조영래, “『사고전서총목』 史部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 『서지학연구』 제44집(2009. 12), 506-507.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장 서두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正史, 編年, 記事本末, 別史, 雜史, 詔令奏議, 傳記, 史鈔 등 비교적 다양한 類目を 배열했고, 그 유목마다 다시 類序를 두는 형식을 취했다.<sup>36)</sup> 이에 반해 『독서록』은 <도표 1>과 같이 유목을 대폭 간략화했다.<sup>37)</sup> 이런 원인은 아마도 당시 장서의 상황과 당시 지식인의 사상과 독서경향에 따라서 유목을 합리적으로 취사선택한 결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 4.4 도서해제

『독서록』은 수록 도서의 선별과 관련해서 서지분석의 다양한 요소들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목제요』의 「범례」는 도서의 장절과 도서의 특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sup>38)</sup>

“열거한 서목은 도서마다 提要를 기술했는데 나누면 諸篇의 서문이 되고 합치면 바로 總目이 된다. 각 도서마다 爵里를 열거하여 세인의 평가를 언급했다. 그리고 해당도서의 특질을 고증하면서 다양한 학설의 異同을 분석했다. 그리고 문자의 增削과 篇帙의 分合 등도 상세히 분별해 크고 작은 것 하나 누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자의 인품과 학문의 절박함과 허물을 밝혀 권선징악을 드러나게 했다.”<sup>39)</sup>

『독서록』은 역시 이와 유사하게 『東國文獻備考』를 중국의 『文獻通考』와 비교하거나, 혹은 『신당서』와 『구당서』를 비교분석을 통해서 篇章 구성과 문장의 특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체례는 마단립의 『문헌통고』를 모방했으나 약간의 차이는 있다. 단군과 기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세워진 것이 여덟이요, 햇수로 따지면

36) 四庫全書研究所整理, 『欽定四庫全書總目』(中華書局, 1997).

37) 이런 類目の 간략화는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면 중국사의 경우 華夷觀에 근거한 정통론에 따라 正史의 개념이 등장했고, 왕조의 유동적인 변화에 따라서 紀傳體 사서의 편찬이 주도적인 경향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8) “도서해제”는 이상용 교수의 분류 기준 중에 특정한 한 부류가 아닌 비교적 넓은 내용을 포함한다.

39) 조영래,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凡例와 案語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27.

4천여 년인데 그 문헌 중에 취해서 상고할만한 것은 오직 이 책뿐이다. 輿地考 중에 山川, 道理, 海防의 상세함은 비록 두우와 마단립이라도 이르지 못한다.”

계속해서 『舊唐書』와 『新唐書』 본기의 기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로 비교해 분석했다.

“宋祁의 문장은 옛 것을 모방하는 정도가 아주 심하여 논자들이 그 겉끄러움을 병폐로 여겼다. 구양수가 편찬한 本紀는 자못 소략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한 것이 없는데, 고조본기, 태종본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다. 생각건대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닌 것 같다.”<sup>40)</sup>

이상과 같이 흥미로운 점은 홍씨의 수록도서 해제에는 한중간의 유사한 부류의 도서를 직접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독서록』은 체례의 구성과 본문을 구성하는 내용을 치밀한 대조 작업을 통해서 『동국문헌비고』의 ‘山川’, ‘道理’, ‘海防’이란 항목은 『통전』과 『문헌통고』와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고, 심지어 오히려 더욱 상세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舊唐書』와 『新唐書』를 서로 대조 분석하여 本紀의 역사 기술의 관점 등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홍씨의 이런 한층을 넘나드는 서지분석의 범주와 방법은 고스란히 고려시기 저술에도 적용되었다. 김부식이 저술한 『三國史記』의 장절의 체례와 그 역사적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 비교적 분명히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동방에는 옛날에 문헌이 없었지만 김부식이 천여 년이 지난 후에 자료를 채집하여 이 책을 편찬했다. 그 내용이 소략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열전은 수편에 불과하여 더욱 역사체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단군 이후 본조 이전에 史書라고 명명할 만한 것은 오로지 이 책뿐이다.”<sup>41)</sup>

계속해서 홍씨는 역대 저술된 주석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는데, 『史記』

40) 『역주독서록』, 122.

41) 『역주독서록』, 126.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와 『水經』의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기』 중에 걸여된 10편은 楮少孫이 보완했다. 한나라 裴駰의 『史記集解』와 당나라 司馬貞의 『史記索隱』과 張守節의 『史記正義』가 세간에 함께 널리 유포되고 있다. 수집이 가장 풍부한 것은 명나라 凌稚隆의 『史記評林』이다.”<sup>42)</sup>

“친하에 지리를 말하는 사람은 모두 『수경』을 중주로 삼는다. 친하에 文辭를 하는 사람 또한 『수경』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는 그 주석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經文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청의 趙一淸의 『水經注釋』 40권, 『刊誤』 12권과 沈炳巽의 『水經注集釋』, 『水經注訂訛』 40권 등이 있는데 모두 考訂에 공훈이 있다.”<sup>43)</sup>

이와 같이 홍씨는 역대 주석서의 저술과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였고, 특히 광범위한 시대를 두고 주석서의 저술과 그 계승성에도 주목했다. 『독서록』의 수록도서에 대한 서지분석의 범주는 한중의 지식체계를 넘나들었다. 이런 서지분석의 가능성은 중국의 청나라와 조선의 서지 이해에 대한 공통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존재했기 때문은 아닐까? 즉 중국과 조선은 일정한 범위에서 공통의 지식체계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4.5 학술사상

### 4.5.1 유교적 정통관의 중시와 계승

『총목제요』는 유교의 정통론을 옹호하면서도 경전의 해석에 있어서 실사구시의 실용정신을 견지했다. 이는 실사구시를 제창한 청대의 고증학적인 학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인데, 「범례」는 우선 유교의 학술을 긍정하면서도 경전에 근거한 정통론을 제창하고 배타적 경전 해석을 반대했다. “儒者의 저서는 종종 하나의 의만을 분명히 했다. (중략) 지금 수록한 저술은 經과 떨어져 이치가 절반뿐이거

42) 『역주독서록』, 114.

43) 『역주독서록』, 175.

나 시비가 전도된 것은 엄격히 배척했다”<sup>44)</sup>고 했다.

『독서록』은 조선시대를 관통했던 유교정통의 가치관을 서지해제에 고스란히 반영했다.<sup>45)</sup> 우선 유가 저술에 대한 근원을 분명히 밝히는데 주력했는데, 『당육전』을 언급하면서 “직관을 강령으로 하고 율령격식을 모두 부록으로 보여주었다. 대개 『주례』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주례』의 저술 시기는 周代가 아닌 秦漢시기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홍씨는 유가 저술의 기원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주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大明集禮』의 해제에서도 周代의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역대의 예서는 『開元禮』가 가장 상세하다. 그 중요한 내용은 『통전』과 『문헌통고』에도 간혹 보이는데 政和 연간 이후는 취할 것이 없다. 지금 그 책을 목록에 올리는 것은 周나라를 따르는 뜻을 보인 것이다.”<sup>46)</sup>

해제의 政和(111-1118년) 연間は 북송시기의 연호인데 홍씨는 역대 禮書의 기원을 모색하면서 그 기원적 정통을 주나라에서 모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유교의 정통관은 조선시기 『五禮儀』의 해제에서도 극명하게 언급했다. “우리 聖祖가 禮를 바로 잡음이 비록 삼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漢唐보다 아주 멀리 올라간 것은 이 책을 편찬한 것만으로도 오히려 상호해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처럼 『독서록』에는 夏商周 삼대를 추존하면서 유교의 정통관을 계승하려는 의지는 禮書의 채록과 해제과정에서 비교적 극명하게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홍씨의 유교의 정통론을 주창은 송대의 학술과 주자의 학문적 가치와 저술을 높이 추앙하며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宋學에 대한 평가는 사마천의 『사기』가 아닌 송대에 부흥한 편년체 사서를 史部 서두에 배치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사치통감』의 해제에서 홍씨는 “사마광은 편년체에서 모두 사가의 비조이다. 이전에도 그 같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올 사람이 없는 뛰어난

44) 조영래,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凡例와 案語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35.

45) “학술사상”은 이상용 교수의 분류 기준 중에 주로 사상과 역사적 가치에 편중된 내용을 포함한다.

46) 『역주독서록』, 169.

인물이다. 주해서로는 송나라 胡三省이 지은 것이 있다”라고 했다. 이후 『통감』의 가치는 주자의 저술로 인해 더욱 가치를 발휘했다. 『독서록』은 『속자치통감장편』에서 주자의 서평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홍씨는 이르길 “북송 일대의 역사책이 오백여권에 이르러 번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자는 ‘국조의 일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의당 이 『속자치통감장편』을 먼저 읽어서 그 상세하고 완벽한 기사를 잘 참고할 지니라’ 했다”<sup>47)</sup>고 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자가 저술한 『자치통감강목』의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통을 엄격하게 세우고 난적을 두렵게 하여 천하에 대의를 드러낸 것은 『춘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sup>48)</sup>

홍씨는 주희의 사상과 학문을 추존함에 공자를 계승하는 원시유가와 성리학의 학통계승으로 파악했고, 후대의 통감관련 저술에 주목하면서 청대에 저술된 『통감강목삼편』<sup>49)</sup>과 『자치통감후편』<sup>50)</sup>을 선별해 채록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저술된 『여사제강』<sup>51)</sup>에서도 이르길 “綱目的 기치를 내걸고 요점을 잡아 간단하고 쉽게 기술했다”라고 했다.

『독서록』의 이상과 같은 통감 저술에 대한 중시는 사서 편찬의 장점보다는 주자의 성리학적 가치와 정통관을 계승하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sup>52)</sup>

47) 『역주독서록』, 106.

48) 『역주독서록』, 106.

49) 『역주독서록』, 110.

50) 『역주독서록』, 110.

51) 『역주독서록』, 111.

52) 홍씨는 통감체례에 대한 중시는 『東史綱目』의 해제에서 이르길 “이 책은 아직 간행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일컬어진다.”라고 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홍씨는 통감체례에서 파생된 紀事本末體에 관한 저술로 송대 기사본말 등의 저술은 『燃藜室記述』의 해제에서 잠시 언급했을 뿐 정식으로 『독서록』에 전혀 채록하지 않았다. 이는 通鑑 저술의 중시는 편년체의 강조가 아니라 인물과 사상과 정통관의 계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게 한다.

#### 4.5.2 실사구시의 사상과 학문 중시

『총목제요』는 채록한 도서의 취사선택을 위해 실사구시의 학술의 근간인 고증학적 입장을 고수했다. 유가의 공리공담을 반대하고 실사구시를 주장했는데 『凡例』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경전의 설명은 義理를 밝히는 것에 주력했다. (중략) 지금 수록한 저술은 고증과 증명, 논변과 정확성을 위주로 했으니 어찌 헛된 공리공담으로 실학의 기풍을 돈독하게 할 수 있겠는가.<sup>53)</sup> (중략) 성현의 학문은 핵심을 분명히 하여 실용에 이르는 것을 주로 했다. 무릇 실사구시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은 모두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 유생은 저술은 高談峻論에 힘썼지만(중략)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顧炎武와 같은 사람은 천하의 언어는 모두 고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중략) 이런 분류는 편벽된 異說로 이러한空言을 제거해야만 도자는 먼 안목으로 유용한 학문을 힘써 구할 수가 있다.”<sup>54)</sup>

『독서록』은 성리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실사구시의 실용가치를 강조했고, 이에 따라 채록할 도서선별 실용성을 강조했다. 홍씨는 『십팔사략』의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위로는 태고에서부터 아래로는 남송 때까지 4천여 년의 흥망성쇠를 단 일곱 편으로 간략하게 기술했다. 문장이 간결하고 개괄적으로 사건을 정리했지만 내용에는 지극히 법도가 있다. 학문에 들어선 초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주 많다.”

사서의 요점기술과 내용과약에 관한 실용적 가치에 관해서는 『여사제강』에서 이르길 “비록 고려 한 시대에 그쳤으나 綱目을 내걸고 요점을 잡아내어 간단하고 쉽게 기록하여 서거정의 책과 비교해 보면 이 책이 더 낫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신당서』에 이르길 “구양수가 편찬한 본기는 소략하고 새롭게 조만한 것이 없는데, 고조와 태종본기가 더욱 심하다. 생각건대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닌 것 같다”<sup>55)</sup>라

53) 조영래,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凡例와 案語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29.

54) 조영래,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凡例와 案語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31.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고 했다. 이러한 비판은 『五代史』<sup>56)</sup>와 함께 체례의 장·단점을 고증한 『元史』<sup>57)</sup>와 『明史』<sup>58)</sup>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채록할 도서를 홍씨 자신이 직접 일독한 경험의 종합으로 이를 고증적 경험을 수록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독서록』은 유교의 사상적 가치의 추구 외에도 채록한 도서의 문헌의 고증과 실용적 가치에도 주목했다는 점이다. 周密이 저술한 『齊東野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밀의 의론은 불순한 것이 많다. 道學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니 그 어긋남이 더욱 심하다. 그러나 남송이후로 조정에 좋은 역사책이 별로 없었다. 조정과 민간에서 빠진 일들을 참고할만한 것은 오직 이 책에 가장 많으므로 없애 버릴 수가 없다.”<sup>59)</sup>

홍씨는 임진왜란 시기 사건을 기록한 『懲愆錄』의 해제에서는 稷山大捷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자 柳成龍의 체험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사건의 서술이 상당히 소략하여 논자들이 그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 정유재란 때 직산대첩은 진실로 국가의 안전과 위험 및 존립과 멸망된 것인데도 그 사실을 완전히 배제했다. 이 부분은 특히 이해하지 못할 점이다. 그러나 유성룡은 몸소 軍中에서 직접 체험한 것이 많으니 상고하고 믿을 만한 것 또한 적지 않다.”<sup>60)</sup>라고 했다.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의 정치·문화적 교류와 연관 홍씨는 『日下舊聞考』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황제가 사는 帝都에 대해서만 기록한 까닭으로 ‘日下’라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신으로 간 사람들이 본 것은 燕京에 그친다. 이 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면 의당 도움이 될 것이다”<sup>61)</sup>라고 했다.

55) 『역주독서록』, 123.

56) 『역주독서록』, 123.

57) 『역주독서록』, 125.

58) 『역주독서록』, 126.

59) 『역주독서록』, 138.

60) 『역주독서록』, 160.

61) 『역주독서록』, 177.

## 5. 『홍씨독서록』과 한중 ‘서지통정’

홍씨는 『독서록』에 중국 서적만 아니라 다수의 한국서적도 수록했는데, 전체 424종 도서 중 61종으로 14%를 차지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중국서적의 해제 기준이란 연장선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중서적의 선별과 해제에는 일정한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서록』 史部의 경우에는 중국서적을 먼저 배치해 기술하고 그 뒤에 한국 도서를 시대순서로 배열해 해제했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과 중국의 서지분석에 일정한 공감대와 공통적인 가치가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에 이공익이 저술한 『燃藜室記述』의 해제에서 홍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외편에는 조정의 典故를 기록하고 내편에는 주제별로 사건을 기록했는데 대략 원추의 기사본말체와 흡사하다. 원추의 책과 진방첩의 『송원기사본말』, 곡옹태의 『명사기사본말』은 모두 수록하지 않은 것은 본조에는 정사가 없기 때문이다.”<sup>62)</sup>

홍씨는 중국의 기사본말 체계의 이해를 근거로 조선의 『연려실기술』을 비교해 해제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는 明清이 교차하는 과도기에 『陪臣傳』을 언급하면서 명의 정통을 주장하기 위한 사서편찬의 목적을 갖고서 『南明史』를 저술의 의지를 언급하기도 했다.<sup>63)</sup> 또한 『羹牆錄』이란 서명의 작명에서도 “서명을 ‘羹牆’이라고 한 것은 舜과 堯임금이 국을 먹고 있는 중에 담장 밑에서 요임금을 보았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은 이미 중국의 역사 문화와 정통적 가치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뿐만 아니라 『독서록』은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 중에 山川, 道理, 海防의 상세함이 『통전』과 『문헌통고』보다 우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sup>64)</sup>

62) 『역주독서록』, 143.

63) 『역주독서록』, 157.

64) 『역주독서록』, 167.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홍씨의 이러한 중국과 당시 조선의 도서를 상호 비교하여 양자의 장단점을 비교해 이를 도서해제에 반영한 것은 중국 도서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이해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중의 서로 다른 지역 간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서지분석의 내용과 지식체계가 형성된 것은 양자 사이에 서지통정(書誌統整, Bibliographic control)<sup>65)</sup>의 가치가 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개념 적용 가능성은 『사고전서』의 편찬과 홍씨의 연행 등 일련의 사건을 나열해 보면 그 개연성을 찾을 수 있다.

<도표 4> 홍석주 활동시기 중국과 조선의 서지학 도서 출간시기의 비교

연도	중국(청)	한국(조선)
1773년	『사고전서』 편찬 착수	
1774년		홍석주 출생
1777년		正祖 원년 『사고전서』 구입을 논의
1781년		『奎章總目』 편찬
1782년	『사고전서』 文淵閣本 완성	
1782년	『사고전서총목제요』 편찬	
1782년	『사고전서간명목록』 편찬	
1792년		『사고전서』 편찬 후 근황 파악
1795년		홍씨 과거급제(22세)
1803년		홍씨 1차 연행(30세)
1810년		『홍씨독서록』 저술(37세)
1831년		홍씨 2차 연행(58세)

홍씨가 활동했던 시기는 중국과 조선에서는 『四庫全書』와 『총목제요』, 『간명목록』 및 『奎章總目』 등의 방대한 저술이 등장했다. 특히 『사고전서』와 같은 대규모 국가편찬 사업에 참여인 인원과 시간 등을 종합해보면 한중간의 ‘서지통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청나라 전성시기 단행된 『四庫全書』의

65) ‘서지통정’은 원래는 16세기 서방 서지학의 개념에 처음 등장을 했다. 즉 모든 지역의 모든 종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정보와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고 완벽하게 구비하고 구사하기 위해 시도된 일련의 통일화와 통합화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내용은李姬載, 『書誌學新論』(韓國圖書館協會, 1998), 162-179를 참고.

편찬과 필사를 통해 중국 전역에 분산 배치한 점은 국경이나 지역적 경계선을 초월해 지식을 공용·공유해 전파하려는 시대적 의지가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지는 서지학적인 교류와 통합을 지향하는 ‘서지통정’의 가치와 일맥 상통한다고 본다. 이런 사실은 『사고전서』를 구입하려는 논의가 정조시기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四庫全書』를 구하여 사오는 일은 序班들에게 상세히 탐문하여 보았더니 말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중략) 『사고전서』는 실로 『도서집성』에 의거하여 그 규모를 확대한 것이니, 『도서집성』이 바로 『사고전서』의 原本인 것입니다. 이미 『사고전서』는 구득하지 못할 바에는 먼저 『도서집성』을 사오고 나서 다시 공역이 끝나기를 기다려 계속 『사고전서』를 구입하여 오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sup>66)</sup>

“『사고전서』는 모두가 6천 1백 44函인데, 먼저 필사를 하고 이미 상세히 교정을 거친 것이 5천 8백 50여 함이며 武英殿提調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文源閣·文淵閣·文津閣의 관원들이 조사하고 상세히 교정하는데, 한 사람마다 매일 각각 2만 자씩 봅니다. 그리고 심양의 文溯閣 장서도 함께 교열하고 있습니다. 文津閣은 열하에 있어 도리가 멀고 운반하기 불편하므로 이곳에 먼저 가서 가까운 데부터 교열하고 있습니다. 文溯閣의 書函은 질수가 방대하여, 張燾로 하여금 가서 뽑아 교열하게 하고 陸錫熊으로 하여금 함께 가서 뽑아 조사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武英殿에서도 조사해 밝히고 분별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일을 끝내지 못하였습니다.”<sup>67)</sup>

<도표 4>에서도 보이지만 조선의 정조는 1773년 『사고전서』 편찬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 도서의 구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추후에도 비교적 상세하게 편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관심은 ‘서지통정’의

66) 『朝鮮王朝實錄』 正祖3卷1年(1777): “『四庫全書』求購事, 詳探於序班輩, 則所言不一(中略) 伏念 『四庫全書』, 實就 『圖書集成』廣其規模, 則 『集成』乃 『全書』之原本也. 既未得 『四庫全書』, 則先購 『圖書集成』, 更待詔役, 繼購 『全書』未爲不可.”

67) 『朝鮮王朝實錄』 正祖34卷16年(1792): “『四庫全書』共六千一百四十四函, 先爲寫, 就已經詳校者, 五千八百五十餘函, 係武英殿提調, 近以文源、文淵、文津三閣各員看檢詳校, 每員每日各看二萬字. 而盛京文溯閣藏書, 亦同考閱. 文津閣, 在於熱河, 道路較遠, 運送不便, 此則前往, 就近看閱. 文溯閣書函, 卷帙浩繁, 令張燾前往抽閱, 陸錫熊同往抽查, 而并令武英殿, 查明分別, 尙未訖工.”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구체적인 계기로 작용하면서 그 영향은 관찬서인 『규장총목』은 물론 『독서록』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란 예측은 쉽게 가능하다.

『독서록』을 둘러싼 한중간의 서지통정의 두 번째 가능성은 홍씨의 두 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모색해 볼 수 있다. 당시 중국과 교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청나라 수도인 燕京으로 사신을 보내는 燕行使의 파견이었다.<sup>68)</sup> 당시 여행의 목적은 매우 다양했다. 외교문서와 조공품을 전달하는 등의 공적인 외교활동 외에도 사적으로 당시의 저명한 학자를 방문해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다. 특히 여행사가 중국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서점가가 밀집한 琉璃廠 등을 방문하는 것도 이들의 중요한 직무 수행의 일부였고, 공식적으로 중국 서적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조선정부와 당시 사대부 및 지식인은 여행을 통해 다양한 도서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게 한다. 여행사의 파견이란 단순히 외교적 관계의 사대가 아니라 여행무역을 통한 청의 새로운 문물을 흡수하는 통로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69)</sup>

<도표 4>처럼 홍씨는 『사고전서』와 『총목제요』, 『간명목록』 등의 저술이 모두 등장한 후 30세 때 여행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에 다수의 청대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간명목록』과 『총목제요』를 접했는데, 이것이 『독서록』 저술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홍씨는 여행을 통해서 두 해제 목록서의 오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직접 목록서 작성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sup>70)</sup> 1차 여행시기 그는 청대의 문인과 밀접하게 교류했는데 『사고전서』의 總纂官인 紀昀(1724-1805)을 만났고, 袁大勳, 費蘭墀와 교류하면서 정조의 명을 받아 『주자대전』, 『주자어류』 등의 주자학 관련 도서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sup>71)</sup>

68) 조선시대 여행사의 파견은 정기적인 여행의 경우는 매년 4회씩 보내기도 했고, 임시적인 여행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謝恩使·奏請使·進賀使·陳奏使·陳慰使·進香使·告誥使·問安使·聖節使·齎咨使 등의 명목으로 부정기적으로 파견했다.

69) 여행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1637년부터 1894년까지 조선에서 청으로 파견된 여행사의 총 횟수는 507회이며, 같은 시기 청에서 조선에 파견한 대조선사행인 勅使는 단지 169회에 머물렀다.

70)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아세아문화사, 2006), 32-35.

## 6. 소 결

본 논문은 『총목제요』의 「법례」 기준을 통해서 조선후기 저술된 해제목록서인 『독서록』의 도서 선별의 서지학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이란 말의 의미는 「법례」에서 수록한 “二十則例”의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그 조항을 『독서록』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독서록』에는 별도의 도서 선별에 관한 법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한중간의 서지학적 분석 범위와 특히 양국 간에 형성된 도서해제의 범주를 “서지통정”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고의 일련의 분석을 통해서 『독서록』은 『총목제요』와 동일한 사부체계를 통해 도서를 선별했고, 그 세부적인 類目の 설정에는 독창성을 내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기존의 선별기준의 연구 성과를 근거로 『독서록』의 「史部」를 대상으로 해제내용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총목제요』의 「법례」와 같이 다섯 가지 범위인 ①저술사상, ②도서변위, ③유례논증, ④도서해제, ⑤학술기원 등에서 도서 선별 일련의 기준과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홍씨 『독서록』과 『총목제요』의 「법례」에서 발견되는 도서해제 범주의 유사성은 아마도 당시 조선과 중국의 빈번한 문화적인 교류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했던 점은 당시 조선 정부는 중국의 『사고전서』 편찬에 관심과 연행사를 통해 본서 구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고전서』와 『총목제요』로 대표되는 당시 중국의 지식체계는 한중간의 빈번한 서적교류를 통해 유입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전서』의 편찬 착수와 『규장총목』의 찬술이 시기적으로 선후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은 아닌 듯하다.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관점을 통해서 보면 『독서록』은 이러한 한중간의 지적인 지식체계의 교류과정에서 등장한 저술로 볼 수 있다. 당시 홍석주는 연행사의 자격으로 연경을 방문해 당시 저명한 四庫館의 학자들과 도서 구입은 물론 도서

71) 김새미오, “연천 홍석주의 연행과 그 의미,” 『동방한문학』 제30집(2006), 324-327.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의 분류에 관해서 긴밀하게 교류했다. 이러한 점은 당시 한중간에 서적과 문화 교류를 통해 형성된 “서지통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총목제요』의 「범례」의 적용 범위를 더 확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 추후 조선 후기에 등장한 관찬 목록서의 분석을 통해 “서지통정”의 구체적인 모습의 분석과 이해가 요망된다. 이것은 홍씨 『독서록』이 갖는 또 다른 차원의 가치 발견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과제인 듯하다.

### <참고문헌>

- 班 固. 『漢書·藝文志』. 中華書局, 1985.
- 令狐德棻. 『隋書·經籍志』. 中華書局, 1992.
- 鄭 樵. 『通志·校讐略』. 中華書局, 1987.
-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上海古籍出版社, 1987.
- 馬端臨, 上海師範大學古典研究所點校. 『文獻通考』. 中華書局, 2011.
- 王堯臣. 『崇文總目』. 商務印書館, 1937.
- 四庫全書研究所整理. 『欽定四庫全書總目』(整理本). 中華書局, 1997.
-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上海古籍出版社, 2002.
- 陳曉華. 『“四庫總目學”史研究』. 商務印書館, 2008.
-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
- 韓章錫. 『淵泉先生年譜』. 淵泉集 附錄. 1911.
- 千惠鳳. 『韓國書誌學』. 民音社, 1993.
- 李姬載. 『書誌學新論』. 韓國圖書館協會, 1998.
- 余慶蓉, 王晉卿 公저, 南台祐, 宋日基 公역. 『中國目錄學思想史』. 태일사, 2009.
-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아세아문화사, 2004.
- 홍석주 원저, 리상용 역주. 『역주홍씨독서록』. 아세아문화사, 2006.
- 안춘근. 『한국서지학원론』. 범우사, 1990.

-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한울, 2011.
- 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혜안, 1997.
- 신양선. 『조선중기 서지사 연구』. 혜안, 2012.
- 네모토아키라, 조재순. 『문헌세계의 구조 - 서지통정론 서설』. 한국도서관협회, 2003.
- 국립도서관 서지학부. 『조선서지학개론』. 한국문화사, 1955.
- 켄트가이(R.Kent Guy), 양휘웅 역. 『사고전서』. 생각과나무, 2009.
- 리상용. “洪奭周의 중국서적에 대한 識見.” 『中原人文論叢』 제18집(1998).
- 리상용.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기준성정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0집(2005).
- 김새미오. “연천 홍석주의 연행과 그 의미.” 『동방한문학』 제30집(2006).
- 조영래. “『四庫全書總目提要』 四部の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연구.” 『서지학연구』 제44집(서지학회, 2009).
- 조영래. “중국역사지리 문헌의 목록학적 분류와 그 기원의 연구.” 『서지학연구』 제52집(서지학회, 2012).
- 조영래. “『사고전서총목제요』의 凡例와 案語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書誌學會, 2012).